



Hello, my name is Sister Geraldine Frances Marr. When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I went to Seton Hill College. From ther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nd professed final vows in 1966. I taught school and I was a principal of an elementary school for many years. I loved being an 8<sup>th</sup> Grade teacher of religion, science and some art. I found great joy in preparing students in liturgical dance. They loved it and so did I.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studied parish ministry and theology at Notre Dame University.



As a member of the FOOD FOR THE POOR team, I traveled to parishes to convince parishioners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Haiti needed their help. Since I spent time in Haiti I could tell my experience

of their life in the slums.

I enjoyed my summer in Ecuador where I taught dance to the students. What a happy time we had together.

For several years I had the opportunity to be a director of our DORAN HALL RETREAT and RENEWAL CENTER and the novice director. Presently I help at

the SHU Child Development Center as a volunteer. I am happy to be living in Greensburg with the Sisters. It is a heavenly experience.





안녕하세요, 저는 제랄딘 프란시스 마 수녀(Sister Geraldine Frances Marr)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씨튼힐 대학에 다녔어요.  
그리고는 수녀회에 입회하여 1966년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특히 8학년 아이들에게  
종교와 과학, 미술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생들과 전례무를 준비하는 일은  
큰 기쁨이었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저도 물론  
좋아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노틀담 대학교(Notre Dame University)에서 본당사목 및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 FOOD FOR  
THE POOR 팀의 일원으로서 본당을  
다니면서 본당신자들에게 아이티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티에서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빈민가에 있는 아이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를 방문했던 여름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에콰도르의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쳤고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동안은 도란 홀 피정센터(DORAN HALL RETREAT and  
RENEWAL CENTER)의 책임과 수련장을 맡았지요. 지금은 씨튼힐



대학 아동 센터(SHU Child  
Development Center)에서 봉사하고  
있고 우리 수녀님들과 그린스버그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하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